

鼻塞症의 原因에 對한 文獻的 考察

洪翼杓* · 蔡炳允*

I. 緒 論

鼻塞症은 鼻病의 한 症狀을 表現한 것으로서 鼻塞, 鼻癢, 鼻塞不利라고도 불리우는데²⁶⁾ 鼻痔, 鼻息肉 등과 같은 鼻內癰腫뿐만 아니라 風熱外傷 痰火內逆도 鼻塞을 일으키며 鼻熱, 鼻淵, 鼻衄, 鼻酸, 酒齶鼻 등 鼻部疾患에도 亦是 鼻塞 症狀이 있다.²⁸⁾

코가 막히면 입으로 숨을 쉬게되어 공부나 作業을 하는데 끈기가 없어져 學校成績이나 作業能率이 떨어지기도 하고 코를 골게 되며 잠 들기가 힘들고 깊은 잠을 잘 수 없다. 어떤 때는 惡夢에 시달리기도 하고 입을 벌리고 자게 되므로 입안이 바싹 말라버리는 수도 있다. 또 냄새를 못 맡게 됨에 따라 飲食物의 맛이 없어지는 結果를 빚으며 목소리까지도 코에서 지나치게 울리기 때문에 變해서 이른바 콧소리가 된다.²⁹⁾

東洋醫學에서는 「西方白色 入通於肺 開竅於鼻 藏精於肺」 「十二經脈 三百六十五絡 其血氣 皆上于面 而走空竅 …………… 其宗氣 上出于鼻而爲鼻」 「肺氣通於鼻 肺和則鼻能知臭香矣」라 하여¹⁴⁾ 鼻의 疾患을 肺와 關聯시켜 觀察하였으며 西洋醫學에서는 鼻塞症의 原因을 主로 奇形, 炎症, 腫瘍 등으로 區分하는데 本人은 鼻塞症에 關한 諸文獻의 收錄된 바를 調査하여 그 原因을 整理함으로써 鼻塞症의 治療에 도움을 얻고자 本 考察을 試圖하였다.

II. 本 論

1. 東洋醫學의 原因

(1) 黃帝內經¹⁴⁾

① 素問 五臟別論

五氣入鼻 藏於心肺 心肺有病而鼻爲之不利也

② 素問 五常政大論

少陽司天 火氣下臨 肺氣上從 白起金用 草木眚 火見燔炳 革金且耗 大暑以行 欬嚏 鼽衄 鼻塞 曰瘍寒熱肘腫

少陰司天 熱氣下臨 肺氣上從 白起金用 草木眚 喘嘔寒熱 嚏鼽衄鼻塞 大暑流行

③ 靈樞 本神篇

肺藏氣 氣舍魄 肺氣虛則鼻塞不利少氣 實則 喘喝胸盈仰息

④ 靈樞 經脈篇

足太陽之別 各曰飛揚 去踝七寸 別走少陰 實則 鼽窒頭背痛 虛則 鼽衄

(2) 金匱要略¹⁵⁾

肺癰胸滿脹 一身面目浮腫 鼻塞清涕出 不開香臭酸辛 欬逆上氣 喘鳴迫塞

(3) 華陀中藏經²⁷⁾

肺風之狀 胸中氣滿 冒味汗出 鼻聞香臭

(4) 巢氏諸病源候論¹³⁾

鼻鼽候

肺之氣 其經手太陰之脈也 其氣通鼻 若肺藏調和則 鼻氣通利而知香臭 若風冷傷於藏 而邪氣乘於太陰之經 其氣蘊積於鼻者 則津液壅塞 鼻氣不宜調 故不知香臭 而爲鼽也

鼻塞塞氣息不通候

肺氣通於鼻 其藏爲冷風所傷 故鼻氣不宜利 壅塞成鼽

(5) 太平聖惠方¹⁵⁾

○ 夫肺氣通於鼻 若其臟為冷風所傷 故鼻氣不通利 成鼽也

○ 夫肺主氣 其經手太陰之脈也 其氣通於鼻 則知於臭香 風冷傷於臟腑 而邪氣乘於太陰之經 其氣蘊積於鼻者 則津液壅塞 鼻氣不通 故不知香臭 鼻塞而為鼽也

(6) 聖濟總錄²³⁾

○ 鼻塞氣息不通者 以肺感風寒 其氣搏結 不得宣快 窒塞既甚而息不能出入也

○ 鼻塞不聞香臭 蓋鼻之窒塞 或冷風乘肺 或肺經壅熱 冷熱固異 其塞則一 皆肺藏不和 氣不宜通故也

(7) 劉河間傷寒三六書¹⁶⁾

鼻塞 窒塞也 火主臍膈腫脹 故熱客陽明經 而鼻中臍脹則窒塞也 或謂寒主閉藏 妄以鼻塞為寒者 誤也 蓋陽氣甚于上而側臥 則上竅通利 而下竅閉塞者 謂陽明之脈左右相交 而左脈注于右竅 右脈注于左竅 故 風熱鬱結 病偏于左 則右竅反塞之類也 俗不知陽明之脈 左右相交 注於鼻孔 但見側臥則上竅通利 下竅窒塞 反熱為寒 兩所以否泰之道者 象其肺金之盈縮也

(8) 儒門事親²¹⁾

常仲明 常於炎暑 時風快處 披露肌膚以求爽 為風所賊 三日鼻塞 雖坐於暖處少通 終不大解

(9) 脈因證治²⁴⁾

鼻為肺之竅 同心肺上病而不利也 有寒有熱 寒邪傷於皮毛 氣不利而壅塞 熱壅清道 鼽鼻息肉乃肺氣盛

(10) 醫學綱目¹⁰⁾

〔垣〕 金匱真言論云 西方白色 入通於肺 開竅於鼻 藏精於肺 夫十二經脈 三百六十五絡 其氣血 皆上走於面而走空竅 其精陽氣 上走於目而為睛 其別氣 走於耳而為聽 其宗氣 出於鼻而為臭 難經云 肺氣通於鼻 肺和則能知香臭矣 夫

陽氣宗氣者 皆胃中生發之氣也 其名雖異 其理則一 若因飢飽勞役 損脾胃生發之氣 既弱其營運之氣 不能上升 邪塞孔竅 故鼻不利而不聞香臭也

又一說 難經云 心主五臭 肺主諸氣 鼻者肺竅 反聞香臭者何也 蓋以竅言之肺也 以用言之心也 因衛氣失守 寒邪 客於頭面 鼻亦受之不能為用 是不聞香臭矣 故經曰 心肺有病 鼻為之不利 潔古曰 視聽明而清涼 香臭辨而溫煖者是也

(11) 普濟方²⁵⁾

○ 肺感風冷 則為清涕 為鼽 為息肉 為不聞香臭

○ 肺為風寒所傷 津液冷滯 鼻氣不宜 香臭不聞 於是壅作鼻鼽

(12) 醫學入門¹⁷⁾

○ 苟或寒傷皮毛 則鼻塞不利 火鬱清道 則香臭不知 新者偶感 風寒 鼻塞聲重 流涕噴嚏

○ 久則略感風寒 鼻塞等證便發 乃肺伏火邪 鬱甚則喜熱 惡寒 故略感冒 而內火便發

(13) 奇效良方¹¹⁾

○ 或六淫七情 內外傷感 又因飲食勞倦 因而鼻氣不得宣通 清道壅塞

○ 或冷滯氣塞鼻則不聞香臭 于是為鼻鼽

○ 鼻之為病 不過風熱而已

(14) 萬病回春⁷⁾

○ 鼻塞聲重 流涕者 肺感風寒也

○ 鼻不聞香臭者 肺經有風熱也

(15) 濟世全書⁸⁾

風寒乘之陽經不利 為壅塞 或為清涕 蘊積不散 散則不聞香臭

(16) 東醫寶鑑⁶⁾

○ 鼻塞 皆屬肺

○ 寒傷皮毛 則鼻塞不利 火鬱清道 則香臭不知 新者偶感 風寒 鼻塞聲重 流涕噴嚏

○ 久則略感風寒 鼻塞便發

○ 鼻鼽者 肺為風冷所傷 津液冷滯 鼻氣不

宜 香臭不知

(17) 景岳全書¹⁸⁾

○ 鼻塞證有二 凡有風寒而鼻塞者 以寒肺腠理 則經絡壅塞 而多嚏噴 此證多在太陽經

○ 若有火邪 上炎而鼻塞者 火之微者 多近上焦出自心肺

○ 火之甚者 多出陽明 或 微兼頭痛

○ 大都常塞者 多火 暴塞者 多風寒

(18) 張氏醫通²⁰⁾

○ 肺氣注於鼻 上榮頭面 若風寒客於頭腦 則氣不通 久而鬱熱 搏於津液 濃涕結聚 則鼻不聞香臭 遂成癰

(19) 醫學心悟²²⁾

○ 鼻塞濁涕者 風熱也

(20) 濟衆新編¹⁾

○ 鼻塞者 寒傷皮毛 火菴清道 則不知香臭

○ 新者 偶感風寒

○ 久則 略感風寒 鼻塞乾燥 久不愈 必肺胃 清氣下陷

(21) 中醫耳鼻喉科學⁹⁾

① 傷風鼻塞

本病多發于氣候多變 寒熱不調 或生活起居失慎 過度 疲勞 致使 正氣虛弱 肺衛不固 風邪病毒 得以乘時侵襲 入侵邪毒 有風寒 風熱之分

外感風寒~肺開竅于鼻 而合皮毛 腠理疏懈 衛氣不固 風寒邪毒 乘機外襲 皮毛受邪 內犯于肺 肺爲寒邪所通 清肅失常 邪毒上聚鼻竅

外感風熱~肺司呼吸 肺衛不固 風熱之邪 從口鼻而入 風熱上侵 首先犯肺 或風寒之邪 久鬱化熱 犯肺 以致肺失清肅 治節失常 肺氣不宜 邪毒停聚鼻竅

② 鼻 窒

肺氣虛弱 邪滯鼻竅~氣化功能不健 易受寒邪侵襲 失去 清肅功能 以致邪滯鼻竅 或脾氣

虛弱 運化不健 失去升清降濁之職 濕濁滯留鼻竅 壅阻脈絡 氣血運行不暢而致

邪毒久留 氣滯血瘀~肺中本有伏熱 兼以邪毒久留不去 阻于脈絡 以致痰火結聚 氣滯血瘀 鼻窒加重

(22) 中醫辨證論治寶典²⁸⁾

○ 寒傷皮毛~肺司呼吸 與皮毛迭爲開闔 寒傷皮毛 皮毛閉而無汗 不能與肺迭爲開闔 因之肺氣不能宣通 而壅逆於清道 遂致鼻塞不利 清涕時流 常多嚏噴 并見惡寒發熱 頭項強痛 身疼骨楚 脈浮緊等證

○ 風熱上壅~風熱上壅 鼻塞流涕 鼻孔乾涕色黃稠 與風寒 鼻塞流清涕者不同

○ 血熱不散~外熱壅於陽明經脈 失於清解 或素嗜醇酒厚味 胃中痰火蘊結 上鬱清道 致鼻內生瘡 或發爲癰腫 皆可使鼻塞不通

○ 膽熱移腦~鼻淵久不愈 濁涕時流 經年累月不止 鼻頰酸通 壅塞不利者〈素問氣厥論〉謂爲‘膽移熱於腦’所致

○ 腎虛腦漏~腎脈虛損之人 鼻淵漏泄太過 或 過用寒涼 致陽虛不固 所漏清稀如水而不腥臭

○ 清陽不昇~陽明脈起於鼻 交頰中 脾胃生發之氣 不能上昇 濁邪害空竅 亦可使鼻塞不利 此類鼻塞 卽 李東垣 所謂‘九竅不利’症之一 多見於飢飽不時 勞倦過度之人 體虛患鼻淵而過用寒涼者 亦可產生

○ 鼻內阻塞~鼻內生痔 或生瘰肉 雖形態不同 皆可阻塞鼻孔 有碍呼吸 發生於一側 則另一側尚可代償 兩側并見 則更難忍受 痔瘡形如粟粒 瘰肉形如石榴子下垂 皆色紫而柔軟 不易出血 兩證致病之由皆因‘燥火內燔 風寒外束 隧道壅塞 氣血昇降 被其妨碍 澆培彌厚’而成

(23) 漢方眼耳鼻喉科學⁵⁾

① 感冒로 오는 鼻塞. 점차 惡化되면 急性 카탈성 鼻炎, 急性鼻炎 및 慢性鼻炎 등으로 擴

大된다.

② 急性鼻炎의 誤治나 오랜 時間이 經過 되면 慢性鼻炎으로 變한다.

③ 肥大性 鼻炎일 때는 鼻閉塞感을 느끼는 것은 鼻粘膜이 充血肥大되거나 或은 下鼻甲이 增厚되었기 때문이다.

④ 鼻痔(蒂瘤瘻肉)가 副鼻洞炎이나 膿腫으로 誘發되었을때 鼻腔內에 初期에 豌豆大의 小瘤가 發生하여 점차 커지면 鼻塞이 되어 通氣되지 않는다.

⑤ 過敏性 鼻炎일 때는 氣候의 變化로 鼻塞不通하게 되고 심하게 되면 氣管支過敏을 誘發하고 哮喘을 併發한다.

⑥ 鼻閉塞이 심하고 때로는 黃色의 混濁한 膿涕가 흐르고 眉心이나 兩頰 或은 後腦가 牽引疼痛하여 極甚한 副鼻洞炎이 發生하여 점차 症狀이 加重되고 神經衰弱 記憶力 減退 등이 있고 或은 洞空의 骨膜이 增厚되는 수가 있다.

⑦ 萎縮性 鼻炎에 있어서도 鼻塞現象이 가장 重要한 症狀이나 鼻粘膜 및 骨性基底에 顯著한 萎縮이 있는 痂皮가 形成되고 惡臭가 있다.

⑧ 鼻咽腔內에 腫瘍이 생겼을 때 呼吸困難이 오고 鼻閉塞이 되며 鼻涕에는 항상 血液을 띠고 耳鳴 或은 耳膿이 있다.

⑨ 小兒에 있어서 慢性鼻炎이나 或은 副鼻洞炎의 患者가 가장 많은 것으로서 小兒들이 鼻涕가 흐르면서 鼻閉塞이 되는 것은 一時的인 感冒로 되는 수가 있겠으나 그 外의 여러가지 鼻疾患에서도 올 수 있다.

⑩ 飢飽勞力으로 脾胃를 損傷하여 發生의 氣가 上昇하지 못하여 空竅를 病邪가 妨害하기 때문이며 或은 氣虛한 사람이 氣弱으로 清氣가 上昇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或은 頭寒으

로 말미암아 鼻塞이 되는 것은 寒邪가 腠理를 密閉하여 經絡이 壅滯되기 때문이며 或은 火邪나 肺熱이 上昇하여 鼻를 薰蒸하기 때문이다.

2. 東洋醫學의 原因

(1) 最新耳鼻咽喉科學³⁾

① 鼻腔內의 原因~협착, 안장코(鞍鼻, saddle nose)

② 鼻腔內의 原因~鼻中隔과 鼻腔側壁의 病變

③ 上咽頭(epipharynx)에 오는 病變~ adenoid vegetation 上咽頭腫瘍

○ 지속적 鼻閉塞~鼻茸, 腫瘍, 慢性肥厚性 鼻炎

○ 일시적 鼻閉塞~急性鼻炎

○ 左右交代性 鼻閉塞~鼻中隔彎曲症, 肥厚性鼻炎

○ 生理的 鼻閉塞~飲酒, 血壓降下劑, 血管擴張劑, 月經

表 1. 鼻閉塞의 原因

奇形 또는 外傷		前後鼻孔閉鎖, 鼻中隔彎曲症, 鼻腔內 유착
炎症	粘膜腫脹에 의한	鼻中隔膿瘍, 急慢性鼻炎
	炎症產物에 의한	慢性副鼻洞炎, 萎縮性鼻炎
腫瘍		上頸癌, 鼻腔폴립
異物		鼻腔異物, 鼻腔結石
上咽頭의 협착		아데노이드, 鼻咽腔섬유腫, 上咽頭癌

表 2. 鼻閉塞의 鑑別

유소아	一側性 鼻閉塞	鼻腔異物, 後鼻孔閉鎖
	兩側性 鼻閉塞	아데노이드, 後鼻孔閉鎖, 急性·慢性鼻炎, 선경성鼻매독

성인	一側性 鼻閉鎖	鼻漏有 ... 上顎惡性腫瘍, 齒性 上顎洞炎 鼻漏無 ... 鼻中隔彎曲症, 慢性肥厚性鼻炎
	兩側性 鼻閉塞	慢性肥厚性鼻炎, 急性鼻炎, 上咽頭腫瘍, 萎縮性鼻炎, 慢性併合性鼻炎
	交代性 鼻閉鎖	鬱血性鼻炎

(2) 最新診斷과 治療²⁾

急性鼻炎: 코안의 乾燥感, 發熱, 輕度の 鼻閉, 재채기와 水樣性 鼻汁

慢性副鼻腔炎: 漿液, 膿性, 粘液性的 鼻汁, 고름樣의 痰, 鼻閉, 眉間의 頭重感, 頭痛, 惡臭, 嗅覺減弱, 視野狹窄

慢性鼻炎: 左右 코의 交代性鼻閉, 옆으로 누우면 아래쪽 코가 閉塞, 嗅覺困難, 코막힌소리

鼻茸: 鼻閉塞, 水樣性鼻漏, 嗅覺鈍麻, 코막힌 소리, 頭重感, 頭痛, 鼻出血, 냄새나는 콧물에 고름과 피가 섞인 경우는 주의

鼻中隔彎曲症: 鼻閉塞, 코막힌 소리, 코피가 잘 난다. 蓄膿症의 병발이 잘 된다. 頭痛

上顎癌: 鼻閉塞, 鼻出血, 진행되면 눈 밑이 腫脹, 뼈까지 미치게 되면 齒에 激痛

Adenoid (扁桃肥大): 鼻閉, 口呼吸, 哺乳障, 嚥下障, 코를 심히 끈다. 코막힌 소리, 鼻漏, 耳漏, 難聽, 表情異常, 새가슴, 기침으로 睡眠障, 活氣低下

Allergy 性 鼻炎: 多量의 묽은 콧물, 鼻閉塞, 鼻汁이 膿性化되지 않음, 특정한 계절에 發病하며 發熱치 않는다. 재채기가 심하다.

其他 鼻腔異物, 肥厚性鼻炎

(3) 家庭醫學⁴⁾

① 一側性 鼻腔 閉塞

- o Choanal atresia

- o Meningoencephalocele

- o 異物 (Foreign bodies)

- o Trauma

② 兩側性 鼻腔 閉塞

- o Allergic rhinitis

- o Vasomotor rhinitis (血管運動性 鼻炎)

- o Rhinitis medicamentosa (藥物性 鼻炎)

(4) 증상으로 알 수 있는 신체의 이상²⁹⁾

코가 막히는 원인

- o 鼻中隔彎曲症

- o 肥厚性 鼻炎

- o 蓄膿症

- o 鼻茸

- o 알레르기性 鼻炎

- o 아데노이드

- o 降壓劑의 副作用

- o 飲酒~코 속의 血管擴張

- o 몸을 차게 식힌 경우~식힌 순간에는 코의 血管이 收縮되어 숨이 잘 통하지만 그 뒤에는 반대로 血管이 擴張되어 코가 막히게 된다.

- o 스트레스~속을 부글 부글 끓이다 보면 코의 血管이 擴張되어 점막이 浮腫

III. 總括 및 考察

黃帝內經¹⁴⁾의 素問 五臟別論에서는 五氣가 鼻에 入하여 心肺에 藏되는데 心肺에 病이 있으면 鼻가 不利해 진다고 하였다. 素問 五常政大論에서는 少陽司天의 해에 火氣下臨하면 肺氣上從하므로 大暑가 流行하며 欬嚏 鼽衄 鼻塞 瘡瘍 附腫의 症狀를 일으킨다 하였고 少陰司天의 해에는 熱氣下臨하면 肺氣上從하여 喘嘔寒

熱 嚏 飢 飢 鼻塞 症狀을 일으키고 大暑가 流行한다 하여 氣候와 鼻疾患과의 關係를 說明하였다. 靈樞 本神篇에서는 肺藏氣 氣舍魄하는데 肺氣가 虛하면 鼻塞不利하고 少氣한다 하였으며 靈樞 經脈篇에서는 足太陽之別을 飛揚이라 하는데 實하면 鼻窒 頭背痛이 있다 하였다.

張¹⁹⁾은 肺經에 鼻塞 涕出하며 不聞香臭한다고 하였고 華²⁷⁾는 肺風에 鼻不聞香臭한다 하여 肺의 病證과 鼻塞의 關係를 說明하였다.

巢¹³⁾는 風冷이 肺를 傷하면 邪氣가 手太陰 肺經을 타고 鼻에 蘊積되어 津液壅塞 鼻氣不宜調하는 故로 不知香臭하며 鼻鼽이 된다고 하였다.

王¹⁵⁾은 巢¹³⁾의 說을 그대로 引用하였고 曹等²³⁾은 鼻塞의 原因이 冷風乘肺 或은 肺經壅熱인데 冷熱이 다르나 그 막힘은 한 가지이니 肺藏不和하여 氣不宜通하는 까닭이라 하였다.

劉¹⁶⁾는 火가 膜腫脹을 主管하는 故로 熱이 陽明經에 侵犯하면 鼻中이 膜脹한 즉 窒塞하며 或者가 寒主肺藏하므로 망령되어 鼻塞은 寒에 屬한다 하는 것은 잘못이라 하였다. 이는 西洋醫學에서 鼻塞의 原因이 되는 炎症, stress, 飲酒 等과도 關聯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張²¹⁾은 더운 날씨에 서늘한 곳을 찾아 肌膚를 露出하면 風邪가 侵犯하여 鼻塞이 된다고 하였고 朱²⁴⁾는 黃帝內經의 說에 따라 心肺에 病이 있으면 鼻不利하여 지는데 寒과 熱이 있으니 寒邪가 皮毛를 傷하면 氣不利하여 壅塞하며 熱도 清道를 壅塞한다고 하였다.

樓¹⁰⁾는 李東垣의 說을 引用하였다. 十二經脈 三百六十五絡의 氣血은 다 面으로 上走하고 空竅로 走하는데 그 精陽氣는 目으로 上走하여 睛이 되고 別氣는 耳로 走하여 들을 수

있게 하며 宗氣는 鼻에서 出하여 냄새를 맡게 한다 하였고 陽氣 宗氣는 다 胃中生發之氣로서 만약 飢飽勞役으로 因하여 胃中生發之氣가 損傷되면 營運之氣가 不能上升하여 邪氣가 空竅를 閉塞하는 故로 鼻不利하며 不聞香臭한다 하였다.

朱²⁵⁾는 肺가 風冷에 感觸되면 鼻鼽 不聞香臭가 되며 肺가 風寒에 傷하면 津液冷滯 鼻氣不宜하니 香臭不聞하여 鼻鼽이 된다고 하였다.

李¹⁷⁾는 寒邪가 皮毛를 傷하거나 火邪가 清道에 鬱結되었을 때 鼻塞 不聞香臭가 되는데 初期의 鼻塞은 風寒에 感觸된 것이며 오래된 鼻塞은 肺에 潛伏된 火邪의 鬱結이 甚한 것이라 하였다.

方¹¹⁾은 大淫七情 內外傷感 飲食勞倦 等으로 因하여 鼻氣不得宜通하고 清道壅塞한다 하였는데 七情을 鼻塞의 原因으로 든 것은 西洋醫學의 原因의 하나인 stress²⁹⁾와도 符合된다 하겠다.

龔⁷⁸⁾은 肺感風寒과 肺經風熱을 鼻塞의 原因이라 하였고 風寒이 陽經을 타고 不利하여 壅塞이 되며 蘊積不散하는데 散하면 不聞香臭한다 하였다.

許⁶⁾는 鼻塞은 肺에 屬하는 病이라 하였고 李¹⁷⁾의 說을 그대로 引用하였다.

張¹⁸⁾은 鼻塞의 原因을 風寒과 火邪로 二分하였으며 常塞者는 火, 暴塞者는 風寒이 原因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張²⁰⁾은 風寒이 頭腦에 侵犯하면 氣不通하며 오래되면 鬱結하여 津液을 搏하고 濃涕가 結聚된 즉 鼻不聞香臭하여 마침내 鼽이 된다고 하였다.

程²²⁾은 鼻塞 濁涕는 風熱이 그 原因이라 하였고 康¹⁾은 李¹⁷⁾의 說을 引用한 外에 鼻塞이 오래도록 낫지 않으면 반드시 肺胃의 清氣가 下陷한 것이라 하였다.

廣州中醫學院⁹⁾은 鼻塞을 急性 鼻炎에 相當하는 傷風鼻塞과 慢性鼻炎에 相當하는 鼻塞로 區分하였으며 傷風鼻塞의 原因을 外感風寒과 外感風熱이라 하였고 鼻塞의 原因을 肺氣虛弱 邪滯空竅와 邪毒久留 氣滯血於라 하였다.

黃²⁸⁾은 鼻塞의 原因을 寒傷皮毛, 風熱上壅, 血熱不散, 膽移熱於腦, 腎虛腦漏, 清陽不昇, 鼻內阻塞으로 區分하였고, 蔡⁵⁾는 感冒, 急性鼻炎, 慢性鼻炎, 肥大性鼻炎, 鼻痔, 過敏性鼻炎, 副鼻洞炎, 萎縮性鼻炎, 鼻咽腔內 腫瘍, 飢飽勞役 脾胃損傷 發生之氣 不能上升 邪害空竅, 氣虛 清氣不能上升, 寒邪, 火邪, 肺熱 等を 提示하였다.

西洋醫學的 原因으로 白³⁾은 狹窄, 안장코 (鞍鼻, saddle nose)等 鼻腔 外의 原因, 鼻中隔과 鼻腔側壁의 病變 等の 鼻腔內의 原因 및 上咽頭腫瘍 等の 上咽頭に 오는 病變의 3가지로 크게 區分하였고 持續的 鼻閉塞에는 鼻茸 腫瘍 慢性肥厚性 鼻炎, 一時的 鼻閉塞에는 急性 鼻炎과 같은 粘膜의 腫瘍, 分泌物의 滯留, 左右 交代性 鼻閉塞에는 鼻中隔 彎曲症, 肥厚性 鼻炎, 生理的 鼻閉塞에는 飲酒, 血壓降下劑, 血管擴張劑, 月經 等を 그 原因으로 들었다. 奇形 또는 外傷에 屬하는 것으로는 前後鼻孔閉鎖, 鼻中隔彎曲症, 鼻腔內 유착이 있고 炎症에 屬하는 것으로서 粘膜腫脹에 의한 것은 鼻中隔膿瘍, 急慢性 鼻炎이 있으며 炎症產物에 의한 것은 慢性副鼻洞炎, 萎縮性 鼻炎이 있다 하였다. 또한 腫瘍에 屬하는 것으로는 上顎癌, 鼻腔폴립이 있고 異物에 屬하는 것으로는 鼻腔異物, 鼻腔結石이 있으며 上咽頭의 狹窄에 屬하는 것으로는 아데노이드, 鼻咽腔 섬유腫, 上咽頭癌이 있다 하였다.

金 等²⁾은 急性鼻炎, 慢性副鼻洞炎, 慢性鼻炎, 鼻茸, 鼻中隔彎曲症, 上顎癌, Adenoid, Allergy 性鼻炎, 鼻腔異物, 肥厚性 鼻炎 等を 鼻塞의

原因으로 들었으며 醫學教育研修院⁴⁾은 一側性 鼻腔閉塞의 原因으로 Choanal atresia, Meningoencephalocele, 異物 (Foreign bodies), Trauma, 兩側性 鼻腔 閉塞의 原因으로 Allergic rhinitis, Vasomotor rhinitis (血管運動性 鼻炎), Rhinitis medicamentosa (藥物性 鼻炎)을 들었다.

奧田²⁹⁾은 코가 막히는 原因으로 鼻中隔 彎曲症, 肥厚性 鼻炎, 蓄膿症, 鼻茸, 알레르기성 鼻炎, 아데노이드, 降壓劑의 副作用, 코속의 血管을 擴張시키는 飲酒, 몸을 차게 식힌 경우, 속을 끓여 코의 血管이 擴張되고 粘膜이 浮腫되는 stress 等を 들고 있다.

IV. 結 論

鼻塞症의 原因에 關하여 以上의 諸文獻을 考察한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을 수 있었다.

1. 東洋醫學에서는 鼻塞症의 原因을 風寒, 風熱, 火邪, 肺經壅熱, 心肺有病, 飢飽勞役 胃中生發之氣 不能上升, 肺氣虛弱, 脾胃 清氣下陷, 七情, 氣滯血瘀 等으로 보았다.

2. 西洋醫學에서는 鼻塞症의 原因으로 急性 鼻炎, 慢性鼻炎, 慢性副鼻洞炎, 鼻茸, 鼻中隔 彎曲症, 上顎癌, Adenoid, Allergy 性 鼻炎, 鼻腔 異物, 肥厚性 鼻炎, 降壓劑 副作用, 飲酒, stress 等を 들고 있다.

V. 參 考 文 獻

1. 康明吉: 濟中新編, 서울, 杏林書院, p.124, 1975.
2. 金東輝 外: 最新診斷과 治療, 서울, 藥業新聞, p.900, 1986.
3. 白萬基: 最新耳鼻咽喉科學, 서울, 一潮閣,

- p.171, 1987.
4. 醫學教育研修院：家庭醫學，서울，서울대학교출판부，pp.104 ~ 106，1978.
 5. 蔡炳允：漢方眼耳鼻咽喉科學，서울，集文堂，pp.251 ~ 252，1982.
 6. 許浚：東醫寶鑑，서울，南山堂，p.238，1981.
 7. 龔廷賢：萬病回春，서울，杏林書院，卷下，p.14，1972.
 8. 龔廷賢：濟世全書，台北，新文豐出版社，p.511，1982.
 9. 廣州中醫學院：中醫耳鼻喉科學，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pp.42 ~ 44，1983.
 10. 樓全善：醫學綱目，台南，台南北一出版社，3冊，p.32，1973，
 11. 方賢：奇效良方，香港，商務印書館，p.1235，1977.
 12. 謝觀：東洋醫學大辭典，서울，高文社，pp.974~975，1980.
 13. 巢元方：巢氏諸病源候論，北京，人民衛生出版社，pp.152,~ 153，1982.
 14. 王冰註：黃帝內經，서울，高文社，p.16，37,203,204,291,299,307,315，1974.
 15. 王懷隱：太平聖惠方，서울，翰成社，p.1112，1115，1979.
 16. 劉河間：劉河間傷寒三六書，서울，成輔社，pp.266~276，1976.
 17. 李挺：醫學入門，서울，翰成社，p.363，1984.
 18. 張介賓：景岳全書，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p.484，1984.
 18. 張機：金匱要略，서울，書苑堂，p.182，1978.
 20. 張璐玉：張氏醫通，新竹，金藏書局，上冊，p.337，1976.
 21. 張從政：儒門事親，台北，旋風出版社，卷六，p.3，1978，
 22. 程國彰：醫學心悟，台北，旋風出版社，p.59，1970.
 23. 曹孝忠 外：聖濟總錄，台北，新文豐出版公司，下冊，p.948，1978.
 24. 朱震亨：脈因證治，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p.156，1984.
 25. 朱權：普濟方，서울，翰成社，p.279，283，1981.
 26. 中醫辭典 編輯委員會：簡明中醫辭典，香港，中華書局，p.948，1979.
 27. 華陀：華陀中藏經，台北，自由出版社，p.13.
 28. 黃三元：中醫辨證論治寶典，台北，八德教育文化出版社，pp.249 ~ 256，1985.
 29. 奧田稔：증상으로 알 수 있는 신체의 이상，서울，리더스 다이제스트，pp.169 ~ 179，1985.